Ⅶ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빅테크 등의 금융산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금융 디지털화·플랫폼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최근 동향과 보험사업자 입장에서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감독당국·금융당국 입장에서 감독·규제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2023년 현재 보험회사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도전에 본격적으로 응전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

투자란 이전과는 다른 신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보험회사 CEO들이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한 것은 더 이상 디지털 전환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험산업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해외 보험산업의 동향으로 ① 인슈어테크 가속화, ② 고령화에 대응하는 건강 관련 보험·서비스 확대, ③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의 3가지 특징과 해외 금융정책의 동향으로 ① 정부의 보험산업 적극 지원, ② 디지털 혁신지원과 보험시장 안정의 균형 도모, ③ 사이버 복원력 제고 노력, ④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해외 트렌드에 맞추어 ① 보험회사 내부의 효율성과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② 보험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략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경우, ③ 고령화, 저출산, 기후변화, 기술발전 등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극 역할을 제시하였다.

결국 금융당국도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보험회사의 진입부터 기존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자회사, 겸영·부수업무, 업무위탁, 영업방식 등의 모든 부문에서의 전면 규제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dd-on

방식의 규제개선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의 규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다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보험 기술 혁신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 대응과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촉진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건전성 제고, 법규 준수, 소비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보험회사들이 내부통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스스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책임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시강화 등 시장규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사이버 침투 테스트, 데이터 복구 체계 구축, 사이버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사이버 위험에 적극 대비해야 하고 오픈보험 등 도입과정에서 사기, 보안성, 공정, 비용, 책임 등 보험의 디지털화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감독·규제 방향은 주요 사회적 전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술발전, 탄소배출 감축 등 주요 사회적 전환 이슈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로 하여금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을 위한 공시·정보공유 확대, 기후리스크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기술·인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큰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